

재일 민단 신임지도부 접견

훌륭한 인사말에 감사드립니다. 하 단장님이 재일 동포의 내력과 처지, 그리고 그간의 활동에 대하여 다소간의 문제점과 미래의 나갈 방향까지 소상하게 잘 말해 주셔서 머리가 깔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게 됐습니다.

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, 이만큼 성공하고 민단을 유지하고 운영해 온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. 국민 모두가 그 점 높이 평가하고, 그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민단 자체도 그렇지만,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해 봅니다.

1세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2세대, 3세대는 어려움이 더욱 커져서, 취업과 결혼 등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일본 사회에서 당당히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홀로 자립하고 잘 해나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. 그 점에서, 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미래는 어둡지 않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지금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이 한국에 뿌리내리고, 일본에서의 생활에서도
유리하고 세계 대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유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할
계획입니다. 한국이 잘 되면 한국의 문화와, 한국의 국적 갖고 있는 자체
가 경쟁력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

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. 하 단장 말씀을 들으니 민단이 바
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없이 미덥습니다. 힘닿는 대로
지원하겠습니다.